
출장결과보고

『글로벌 사우스 협력 전략연구』
- 일본 정책 사례조사를 위한 현지 방문면담 -

2024년 3월



한국개발연구원
Korea Development Institute

< 출 장 개 요 >

□ 출장 배경 및 목적

- (배경)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수탁한 국가전략 협동연구인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 강화를 위한 글로벌 사우스 협력 전략연구』의 일환으로, 주요국들의 對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분석할 필요
 - 이를 통해 한국의 상황을 진단하여 대상지역 및 국가와의 맞춤형 협력 전략을 마련하고, 국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국익확대를 위한 연구 추진 예정
- (목적) 주요국 중 일본의 對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관련 경제외교 정책을 수립/실행하는 부처/기관을 방문/면담하여 한국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
 - 특히, 올해 6월 예정된 『한국-아프리카 정상회의』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일본 정부 주도下 2023년에 30주년을 맞이한 『아프리카 개발회의(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 TICAD)』에 대해 심층면담
 - 또한 관련 정책으로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에 대해서도 현지조사 예정 (cf.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 아울러 글로벌 사우스를 주제로 한 현지 세미나에 참석하여 관련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구축

□ 출장지 및 방문기관

- 출 장 지: 일본 도쿄(“가” 지역)
- 방문기관
 - 일본 내각관방(内閣官房) 해외비즈니스 투자지원실
 - 일본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 통상정책국 및 아프리카실
 - 일본 외무성(外務省) 종합외교정책국 및 아프리카부
 -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 일본무역진흥기구(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JETRO)
 - 아시아경제연구소(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IDE)

□ 출장자

- 출장자명 및 소속: 나정현 글로벌경제연구실 총괄 (1명)

□ 출장일정

- 일자: 2024년 3월 5일(화) ~ 9일(토), 4박 5일
- 세부 일정

일자	시간	주요 활동 내용	비고
3.5 (화)	09:00~11:05	[출국] 김포 → 하네다 (KE2101)	
	14:00~16:00	[JICA 국제심포지엄] 글로벌사우스가 가져올 새로운 다이내믹	링크1
	16:00~18:00	[JICA] 방문/면담	
	18:00~	간담회(1)	
3.6 (수)	10:00~12:00	[JETRO] 방문/면담	
	14:00~17:00	[JETRO-IDE 국제심포지엄] 글로벌사우스의 신흥국과 세계질서 재편	링크2
	18:00~	간담회(2)	
3.7 (목)	10:00~12:00	[외무성] 종합외교정책국	링크3
	14:00~17:00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국 및 아프리카실	링크4 링크5
	18:00~	간담회(3)	
3.8 (금)	10:00~12:00	[외무성] 아프리카부	링크6
	15:00~17:00	[내각관방] 해외비즈니스 투자지원실	링크7
	18:00~	간담회(4)	
3.9 (토)	10:00~12:00	[아시아경제연구소(IDE)] 방문/면담	링크8
	12:00~14:00	간담회(5)	
	19:50~22:25	[귀국] 하네다 → 김포 (KE2104)	

주: 방문 부처 사정에 따라 당초 일정과 다소 변동

- 숙박: Hotel Villa Fontaine Grand Tokyo - Roppongi¹ (예약 완료)
 - 주소: 1-6-2 Roppongi, Minato City, Tokyo, 106-0032
 - 전화: +81-(0)3-3560-1110

1 (사이트) <https://www.hvf.jp/eng/roppongi/>

< 출 장 결 과 >

1. 주요 질문 사항

□ 내각관방 해외비즈니스 투자지원실

-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연대강화 추진회의」(이하 「추진회의」)를 설립하는 등 일본 정부가 글로벌 사우스를 정책/플랜으로서 다루게 된 경위
- 추진회의에 있어 향후 계획: 어느 수준/단계, 어느 정도 구체적인 정책을 언제까지 제시?
- 추진회의에 있어 내각관방은 관계 부처들과의 조정 역할을 하는데 그 외의 역할?
- 추진회의 이외에 경제외교정책에 있어 각종 본부/회의체와 어떠한 관계성?
-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연대에 있어 일본 정부가 중요시 하는 요소

□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국 및 외무성 종합외교정책국

-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연대강화 추진회의」(이하 「추진회의」)를 설립하는 등 일본 정부가 글로벌 사우스를 정책/플랜으로서 다루게 된 경위
- 글로벌 사우스와 관련하여 경제산업성/외무성에는 어떠한 정책/플랜들이 있는지, 해당 정책/플랜을 통해 어떠한 목표를 이루고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 주요한 관련 정책/플랜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와의 관계성 등 경제산업성/외무성의 정책들 중 글로벌 사우스의 위치/중요도?
-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연대에 있어 경제산업성/외무성이 중요시 하는 요소
- 글로벌 사우스를 비롯하여 대외경제·외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 부처들과의 협력은 원활한지, 협력 시 어려운 점?

□ 경제산업성 아프리카실 및 외무성 아프리카부

- 2023년에 30주년을 맞이한 『아프리카 개발회의(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 TICAD)』의 추진 경위
- TICAD를 통해 어떠한 목표를 이루고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 올해 6월 예정된 『한국-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어드바이스/팁을 제시한다면?
- TICAD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연대에 있어 경제산업성/외무성이 중요시 하는 요소
 - 아프리카 국가들은 다양하고 협력 분야도 많은데 한정된 자원 중 어떠한 방식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지? 우선순위 기준이 있는지?
- TICAD에 있어서 글로벌 사우스 관련 정책/플랜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와의 관계성
- TICAD를 비롯하여 대외경제·외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 부처들과의 협력은 원활한지, 협력 시 어려운 점?

2. 주요 답변 내용

<표 1> 일본 관계부처 면담자

	부처명	소속	직위	성명
1	내각관방 (内閣官房)	해외비즈니스 투자지원실	Director (参事官)	Watanabe (渡部 保寿)
2			Deputy Director (参事官補佐)	Nakayama (中山 裕二)
3	경제산업성 (經濟産業省)	통상정책국 총무과	Principal Deputy Director (政策企画委員)	Fukuoka (福岡 功慶)
4			Deputy Director (課長補佐)	Murakawa (村川 拓也)
5		통상정책국 중동아프리카과 아프리카실	Deputy Director (課長補佐)	Hashimoto (橋本 雅拓)
6	외무성 (外務省)	종합외교정책국 총무과	Deputy Director (課長補佐)	Takei (武井 紀文)
7		중동아프리카국 아프리카부 아프리카 제1과	Deputy Director (課長補佐)	Watanabe (渡邊 レオ)
8			Assistant Director (主査)	Takagi (高木 勇歩)

□ 내각관방 해외비즈니스 투자지원실

- (경위) 최근 글로벌 사우스를 주도하는 인도(2023 G20 의장국)의 추진과는 별개로 일본 정부 내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글로벌 사우스 관련 논의가 있었음.
 - 2023년 3월 인도에서 개최된 『인도 세계문제 평의회(Indian Council of World Affairs: ICWA)』에 기시다 총리가 참석, 「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를 발표한 것이 계기
 - 특히, 2023년 5월 G7 일본 히로시마 정상회의도 중요한 계기
 - 더불어 2023년 『일본-ASEAN 우호협력 50주년』, 『아프리카 개발회의(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 TICAD) 30주년』을 맞이함.
- (진행) 2023년 10월 17일, 제1회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연대강화 추진회의」(이하 「추진회의」) 개최를 통해 작년 가을 보정예산 반영
 - * 자세한 내용은 경제산업성과의 면담(p.5) 및 당시 회의 자료(p.7~) 참조
- (계획) 일본 예산편성 일정상 5~6월 경에 부처들의 기본 예산(안)이 제출되므로 추진회의에서 향후 논의될 글로벌 사우스 관련 정책/사업들도 해당 일정에 맞춰 가예산으로 편성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연대강화를 통해 해당 국가들의 활력을 일본 경제·사회의 활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자 함.

- (역할) 내각관방 해외비즈니스 투자지원실은 추진회의의 조정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 시 현지 지원도 수행
 - 同지원실은 기시다 정부의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2022년에 신설
 - 추진회의에서는 대외경제·통상 정책과 외교 정책 간의 균형을 조율하며, 이외에도 의료, 환경 등의 분야/정책도 균형 있게 논의/검토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함.
- (기타) 자민당이 주도하는 『일본·글로벌 사우스 연대본부』도 설치되어 추진회의에 앞서 2023년 10월 5일 첫 회의를 개최
 - 同본부는 당의 정무조사회(政務調査會) 내의 조직으로 12월 도쿄에서 개최된 『일본-ASEAN 특별 정상회의』를 대비하기 위함

□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국 및 외무성 종합외교정책국

- (경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G7 및 UN 각종 회의에서 국제 분단화에 대해 다수 논의되면서 국제적인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 일환으로 글로벌 사우스를 논의
 - 同전쟁으로 에너지/식량 가격이 높아지면서 G7 멤버로서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
 - 일본의 경제성장 및 경제안전보장 측면에서 주요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협력국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성 대두
- (관련정책)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와 글로벌 사우스는 사상적 토대를 공통으로 하며, 다자간 외교의 양축으로 추진
 - FOIP의 핵심은 국제규범 및 인간의 존엄성으로 글로벌 사우스도 연장선상에 있음.
 - 2023년 3월에 발표된 「新FOIP」에는 외교 정책을 넘어 경제협력도 포함하며, 협력국의 다양성 및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에 중점을 둬.
 - 가령, 美日 2국간 협력이나 韓美日 3국간 협력 등에도 FOIP 및 글로벌 사우스를 정책 수단으로서 활용
 - 관계부처들도 「FOIP」 플랜을 염두에 두면서 관련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新FOIP」 발표 시 모범사례로 50여개 정책/사업 리스트를 선정
- (진행) 경제산업성에서는 「글로벌 사우스 미래지향형 공창(共創) 사업」으로 1,083억 엔의 보정예산을 작년 하반기에 편성
 - 사업목적: 글로벌 사우스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시장을 활성화 하여 이노베이션을 창출, 공급망을 강화하여 일본 국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경제협력도 강화
 - 주요사업: ① 글로벌 사우스 미래지향형 공창 사업(공급망 구축, 탄소중립 실현 등), ② 글로벌 사우스 미래산업 인재육성 사업(GX/DX化), ③ 미래산업의 지식 플랫폼 구축 사업
- (계획) 상기 3가지 사업을 축으로 flagship project를 기획하여 민간 대상으로 공모하여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
 - 경제산업성 외에도 외무성의 ODA 사업, 재무성(財務省) 및 국제협력은행(JBIC)의 사업도 예정

- (전략국가) G7 멤버로서 글로벌 사우스에 접근, 대상 국가들과 지금까지의 관계를 바탕으로 보다 맞춤형으로 파트너십을 구축
 - 국내 현안뿐만 아니라 대외경제·통상 및 외교 이슈/정책을 일본 국민에게도 홍보/성과 확산 할 필요
 - 이미 일본 민간 기업들이 아세안 및 인도에는 진출했으나 그 외의 신흥국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낮아 글로벌 사우스 관련 정책/사업을 통해 다양한 해외 시장에 진출 유도

□ 경제산업성 아프리카실 및 외무성 아프리카부

- (경위) 1980년대 후반 냉전 이후 미국-유럽국가들의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가 점차 떨어지면서 일본이 다자간 협력의 일환으로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주도
 - 1993년 제1회 『아프리카 개발회의(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 TICAD)』 개최, 「아프리카 개발에 관한 도쿄 선언」 채택
 - 이후 3년 주기로 개최, 2022년 튀니지에서 제8회가 진행되었으며, UN 및 UNDP, WB 등 국제기구들과 공동개최하면서 규모도 확대
 - 2023년 8월, TICAD 30주년 기념 행사를 도쿄에서 개최하였으며, 2025년 요코하마에서 제9회 TICAD가 예정됨.
- (진행) 제8회 TICAD의 주제인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이나 중국 등과는 차별성을 둔 일본의 장점/강점을 살려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
 - 인력에 대한 투자, 성장의 질을 중시하며 민-관에 있어 3년간 300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
 - 특히, 「아프리카 그린 성장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① 오너십과 공창(共創), ② 기동적인 자금동원, ③ 다양한 파트너와의 연대 등을 통해 아프리카에 대한 일본의 공헌을 최대화
- (성과) 「TICAD 프로세스·모니터링 합동위원회」를 통해 TICAD 개최마다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3~5년 주기로 이행상황을 점검, 단순히 행사 개최로 그치지 않도록 유의하여 성과 확산을 모색
 - 우선 액션 플랜을 만들어 매년 모니터링하며, 주 아프리카 대사관 및 아프리카 진출 기업 등을 통해 성과지표 달성 상황을 청취
 - 아프리카의 54개국에 대해서는 국가별 원조 계획을 수립하여 5년 마다 갱신하되, 개별 국가 별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TICAD를 통해 보완
 - 또한 경제산업성이 담당하는 상설 「아프리카 비즈니스 협의회(Japan Business Council for Africa: JBCA)」를 통해 TICAD나 「일본-아프리카 민관 경제 포럼(Japan Africa Public-Private Economic Forum: JAfEF)」과 유기적으로 연계
- (관련정책) 2016년 제6회 케냐 TICAD 당시 「FOIP」 개념을 발표했으며, 2023년 「新 FOIP」 발표문에도 ‘아프리카’를 언급하는 등 정책들의 관련성/연관성을 유지
 - 참고로 TICAD와 유사하게 『일본-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Pacific Islands Leaders Meeting: PALM)』를 1997년 제1회 개최 이후 3년 주기로 일본에서 열리며, 2024년 7월에 제10회를 맞이함.

グローバルサウス諸国との連携強化推進会議の開催について

令和5年10月16日
内閣総理大臣決裁

1. 我が国とグローバルサウス諸国との連携を強化し、我が国経済の振興等を図る観点から、連携強化策について関係省庁で検討するため、グローバルサウス諸国との連携強化推進会議（以下「推進会議」という。）を開催する。
2. 推進会議の構成は、次のとおりとする。ただし、議長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関係者の出席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議長	内閣官房長官
議長代行	内閣官房副長官（衆）
副議長	内閣官房副長官補（内政担当） 内閣官房副長官補（外政担当）
主査	内閣官房内閣審議官（海外ビジネス投資支援室） 外務省総合外交政策局長 経済産業省通商政策局長
構成員	内閣官房内閣審議官（国家安全保障局） 内閣官房内閣審議官（内閣官房副長官補付（経協インフラ担当）） 金融庁総合政策局国際総括官 総務省国際戦略局長 外務省国際協力局長 財務省国際局長 厚生労働省大臣官房総括審議官（国際担当） 農林水産省輸出・国際局長 国土交通省国際統括官 国土交通省大臣官房海外プロジェクト審議官 環境省地球環境局長

3. 推進会議の庶務は、外務省及び経済産業省の協力を得て、内閣官房において処理する。
4. 前各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推進会議の運営に関する事項その他必要な事項は、議長が定める。

「グローバルサウス」との連携強化について (外務省・経済産業省提出資料)

令和5年10月17日

1 問題意識

(1) 我が国は、一貫して「グローバルサウス」(以下GS)への関与を重視。GSとともに、法の支配に基づく自由で開かれた国際秩序を維持・強化すべく取り組んできている。

(2) 国際社会が歴史的な転換点を迎えている中、GSとの関与を更に強化し、分断と対立ではなく協調の国際社会を実現するために、国際社会をリードしていくことが日本外交の重要課題。

(3) そのために、新FOIPプランを始めとするこれまでの政策を着実に実施。その上で、ODAを始め、投入するリソースや日本企業の現地展開不足等の課題に対処し、我が国とGS諸国の相互の経済成長、経済的強靱性の強化を図っていく必要がある。



5月19日－21日 G7広島サミット

2 基本的な考え方

(1) 我が国の国益増進につながるものであること。

(①法の支配に基づく自由で開かれた国際秩序の維持・強化、②貿易投資関係の強化を通じた相互の経済成長の実現、③重要鉱物等のサプライチェーン構築による経済的強靱性の強化 等)

(2) 脆弱国を始め、GSを一枚岩と捉えず、個別の地域・国の事情に応じた、きめ細やかな対応をとること。

(3) 国連憲章にある諸原則の重要性や気候変動を含むSDGsなど、GSとの共通項を強調し、国際公益の実現を図っていく姿勢を示すこと。

3 グローバルサウスの脆弱性・経済分野における重要性

- グローバルサウスには、自然災害や紛争・難民問題等、①個々の緊急課題に直面する国々が多いことから、社会環境の安定に向けて寄り添う必要あり。
- グローバルサウスへの関与強化は、②経済成長、③経済安全保障等の観点から非常に重要。
- 一方、グローバルサウスには、インフラの未整備・人材確保、政情不安等の課題があり、日系事業者の進出が十分に進んでいない。

個々の緊急課題（人道危機）

自然災害や紛争、難民問題等を抱える脆弱な社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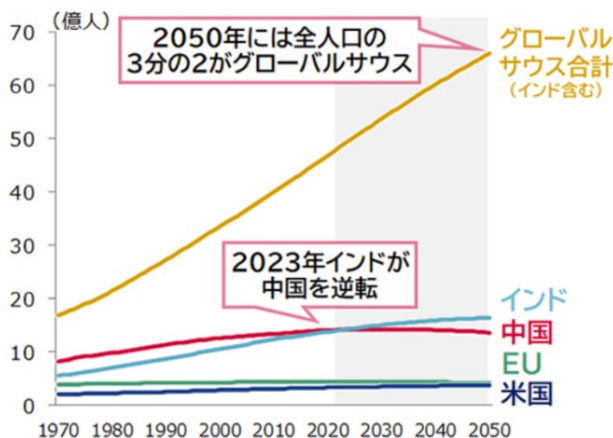
◆日本らしいきめ細かな人道支援
食料、難民、医療、テロ対策、女性等

◆地球規模課題
気候変動対策、感染症対策等

グローバルサウスに寄り添い、「人間の尊厳」ある安定した社会環境の実現

経済成長

2050年にかけて人口が伸び、高い成長が期待される



(出所)三菱総合研究所「MRIエコノミックレビュー：ウクライナ危機で存在感増す「グローバルサウス」①」

グローバルサウスと共に成長することで経済成長を実現

経済安全保障

サプライチェーンの重要鉱物の多くはグローバルサウスに存在

◆リチウム

中国：55%、チリ：30%

◆レアアース

中国：60%、ベトナム：16%

◆ニッケル

インドネシア：28%、フィリピン：26%

グローバルサウスと日本の経済強靱性強化を両立

4 対応案

(1) グローバルサウスとの政策対話や交流の機会を増やす

- ハイレベル交流含め、安全保障・経済等多分野にわたる重層的な対話・協力を活発化。
- 国民レベルでの人的交流や草の根交流の機会を増やしていく。招聘・派遣、文化交流。

(2) 具体的な協力の強化

- 外交の最も重要なツールの一つであるODAの効果的・戦略的活用。日本の強みを活かし、国毎の事情を考慮したオファー型協力を行い、開発途上国の課題解決と同時に、我が国の課題解決や経済成長にもつなげる。
- 日本企業の現地展開の加速など経済・ビジネス活動の深化を進めるとともに、グローバルサウス諸国との産業協力を強化する。
- 外交行事や総理の外国訪問を念頭に、東南アジア、インドを始めとする南西アジア、中東、アフリカ、中南米、太平洋島嶼国等との間で具体的な協力案件を形成していく。
- 特に、サプライチェーン、エネルギー、重要鉱物、脆弱国支援、DX・GX支援、国際保健などで具体的な協力案件を打ち出していく。

(3) 戦略的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強化

- GSへの関与に際しては、説得力のあるナラティブを効果的に発信することが重要。

【ODAによる取組】最脆弱層への支援

アジア

- ミャンマー、アフガン等
難民支援
- スリランカ・パキスタン
支援
- 島嶼国での自然災害
対応、漁業支援



中東・アフリカ他

- TICAD8
- パレスチナ、シリア、スーダン等
の難民支援
- 自然災害、食料、医療、
テロ対策、女性



地球規模課題

- 国際保健
- 気候変動

【経済・産業分野での取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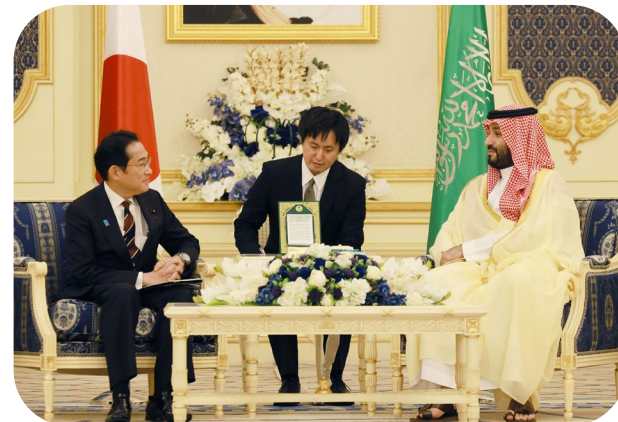
ASEAN

- アジア・ゼロエミッション共同体 (AZEC)構想(2022年1月～)
- 日ASEANサプライチェーン多元化
- 東アジア・アセアン経済研究センター設立(2008年6月～)



インド

- 「日印クリーン・エネルギー・パートナーシップ」(2022年3月)
- 「日印産業共創イニシアティブ」「日印半導体サプライチェーンパートナーシップ」(2023年8月)



中東

- 日・サウジ「ライトハウス・イニシアチブ」(2023年7月)
- 日・湾岸地域「グローバルグリーンジャーニー」(2023年7月)



アフリカ

- アフリカと資源・重要鉱物サプライチェーン、ナミビア「レアアース産業マスタープラン」(2023年8月)



中南米

- エネルギー・重要鉱物、炭素繊維サプライチェーン協力



太平洋島しょ国

- 社会課題解決ビジネス実証支援協力

グローバルサウス諸国との連携強化推進会議（第1回） 議事要旨

日時：令和5年10月17日（火）10：15～10：30

会場：官邸4階 大会議室

出席者：岸田内閣総理大臣、松野内閣官房長官、村井内閣官房副長官、藤井内閣官房副長官補、泉内閣官房内閣審議官（海外ビジネス投資支援室）、松尾経済産業省通商政策局長、遠藤外務省国際協力局長、高村内閣官房内閣審議官（国家安全保障局）、佐々木内閣官房内閣審議官（経協インフラ担当）、川崎金融庁総合政策局審議官（国際担当）、田原総務省国際戦略局長、今福外務省総合外交政策局参事官、三村財務省国際局長、富田厚生労働省大臣官房総括審議官（国際担当）、水野農林水産省輸出・国際局長、高橋国土交通省国際交通特別交渉官、小野寺国土交通省大臣官房海外プロジェクト審議官、秦環境省地球環境局長、四方内閣広報官

- 冒頭、松野内閣官房長官から以下の発言があった。
 - ・ 今般の「グローバルサウス諸国との連携強化推進会議」は、我が国と、いわゆる「グローバルサウス」との連携を強化し、グローバルサウス諸国の脆弱性の克服をサポートしながら、同時にその活力を取り込み、我が国の経済の振興等を図る観点から、関連施策について関係省庁間で検討を行うもの。
 - ・ そのためには、「グローバルサウス」の多様性をよく理解し、各国及び各地域の実情に応じて、「グローバルサウス」の国々との関係を検討していく必要がある。
 - ・ 本推進会議における議論を通じて、「グローバルサウス」の国々が抱える課題の克服につながり、同時に、我が国と「グローバルサウス」の国々の、相互の経済成長や経済的な強靱性を強化できるよう、具体的な協力や支援を検討頂きたいと考えている。関係省庁のご協力を宜しくお願いしたい。

- 遠藤外務省国際協力局長から、資料を用いて以下の説明があった。
 - ・ 「『グローバルサウス』との連携強化について」という資料に沿って、外務省及び経済産業省から全般的、基本的な点につき、簡潔に申し上げる。
 - ・ まず、これまでの経緯を踏まえた問題意識について、我が国は、一貫していわゆる「グローバルサウス」への関与を重視し、ともに法の支配に基づく自由で開かれた国際秩序を維持・強化すべく取り組んできている。国際社会が歴史的な転換点を迎えている中、これを更に強化し、分断と対立ではなく協調の国際社会を実現すべく、リードしていくということは日本外交の重要課題である。そのために、新FOIPプランを始めとするこれまでの政策を着実に実施し、その上で、ODAを始め、投入するリソースや日本企業の現地展開不足等の課題に対処し、我が国とグローバルサウス諸国の相互の経済成長、経済的強靱性の強化を図っていく必要があると考えている。
 - ・ こうしたグローバルサウスとの連携強化にあたっての基本的な考え方として、第一

に、我が国の国益増進につながるものであること、第二に、脆弱国を始め、グローバルサウスを一枚岩と捉えず、個別の地域・国の事情に応じた、きめ細やかな対応をとること、第三に、グローバルサウスとの共通項を強調し、国際公益の実現を図っていく姿勢を示すことの3点が重要であると考えます。

- ・ グローバルサウスの抱える脆弱性及び経済面の重要性について、まず、グローバルサウスは、自然災害や紛争・難民問題など、個々の緊急課題に直面する国々が多いことから、「人間の尊厳」の実現と社会環境の安定に向けて寄り添う必要がある。

また、グローバルサウスにおける人口の増加や重要鉱物の存在などを考えても、関与の強化は、我が国の経済成長、経済安全保障などの観点からも非常に重要である。

一方、グローバルサウスには、インフラの未整備・人材確保、政情不安等の課題があり、日系事業者の進出が十分に進んでいないという課題がある。

- ・ 以上を踏まえたグローバルサウスとの連携強化に向けた対応案として、まずは、当然ながらグローバルサウスとの政策対話や交流の機会を増やすことが重要であると考えます。

第二に、グローバルサウスとの間で具体的な協力の強化を積み上げていく必要がある。外交の最も重要なツールの一つである ODA の効果的・戦略的活用、特に日本の強みを活かしたオファー型協力を行っていき、また、日本企業の現地展開の加速など経済・ビジネス活動の深化を進めるとともに、グローバルサウス諸国との産業協力を強化していきたい。

そして、外交行事や総理の外国訪問を念頭に、東南アジア、南西アジア、中東、アフリカ、中南米、太平洋島嶼国等との間で具体的な協力案件を形成してまいりたいと考える。特に、サプライチェーン、エネルギー、重要鉱物、脆弱国支援、DX・GX 支援、国際保健などで具体的な協力案件を打ち出していく。

第三に、戦略的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強化などの観点から、グローバルサウスへの関与に際し、説得力のあるナラティブを効果的に発信してまいりたいと考えている。

- 松尾経済産業省通商政策局長から、資料を用いて以下の説明があった。

- ・ エネルギー安全保障という観点からは、ASEAN との間ではアジア・ゼロエミッション共同体、インドとのクリーン・エネルギー・パートナーシップ、中東・サウジ・湾岸地域とのイニシアチブ、あるいはサプライチェーン協力でも ASEAN との多元化やインドとの半導体等、さらには資源・重要鉱物についてはアフリカや中南米等との協力が進められている。
- ・ 今、話のあった対応案に従って、今後さらに、取組を強化していく必要があると考える。

- 最後に、岸田内閣総理大臣から以下の発言があった。

- ・ 国際社会は、今、歴史の転換点にあり、世界の一体化を目指してきた流れとは異なる動きも生じている。そうした中、協調に向けた世界を目指すため、本年3月に私がイ

ンドを訪問した際には、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FOIP）のための新たなプランを発表した。また、5月のG7広島サミットにおいては、いわゆるグローバルサウスとの関係強化を図った。

- ・ 今後、我が国として同志国との連携に加え、グローバルサウスと呼ばれる新興国、途上国との連携を強化し、それらの国々をパートナーとしていくことが、我が国の経済安全保障面を含めた国益にかなうとともに、国際社会における分断と対立の動きを協調へと導くものと考えている。
- ・ グローバルサウスとの連携に当たっては、安定的な国際秩序を作るとともに、官民が連携したフラッグシップとなるべきプロジェクトを組成し、双方の国々が裨益する仕組みとしてまいりたい。
- ・ 具体的には、我が国外交の重要なツールの一つである、ODA（政府開発援助）を効果的・戦略的に活用するとともに、日本企業の現地展開を加速など、経済ビジネス活動の深化を進めていく。
- ・ このため、グローバルサウス諸国との間で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FOIP）のための新たなプランの具体化に向け、グローバルサウス諸国との産業協力策の強化、効果的・戦略的なODA活用等による脆弱な国々への支援と協力のための枠組みづくりを推進し、グローバルサウス諸国とともに繁栄を目指していく。
- ・ こうした考え方の下、関係省庁が連携して対応することとし、早急に取り組むべき施策を経済対策に盛り込むとともに、今後、本会議を通じて議論を深化させ、来春をめぐりにグローバルサウス諸国との連携に向けた方針を取りまとめていただきたい。

以 上